

지역 매아리

부안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부안군은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군등분) 227천7천원에 4억3천7천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은 1만5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 개인분은 면제된다.

납부 기간은 10일부터 9월 2일까지며, 전국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출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이영훈 재무과장은 "전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 내는 주민세는 부안군의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는 재원으로 납부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194호이며(공통주택 145호 별도), 개별주택 조사담당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누구나 이 기간에 군청(종합민원관·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아파트·빌라·연립 등)에 대한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한국감정원,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개별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군민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사계절 내내 문제없이 즐겨요”

정읍시, 실내형 어드벤처 복합놀이시설 조성... 2020년 2월 개장 목표

정읍시가 생동감 있고 활동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사계절 토탈관광 핵심 거점인 내장산 문화관광 일원에 전북 최대 규모의 실내형 어드벤처 복합놀이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에 착공한 이번 사업은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일환으로 도비 18억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한다.

총 2,962㎡의 규모로 실내 놀이시설에는 파워클라이밍과 스크린스프링, 멀티코트, 트램폴린 등 다양한 놀이시설 20종 50여 개를 도입해 2020년 2월 개장할 예정이다.

실내형 어드벤처 시설은 더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을 비롯해 청소년들과 연인들에게 정읍을 찾았을 때 놀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읍시가 내장산 문화관광 일원에 실내형 복합놀이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사계절 내내 비는 물론 미세먼지의 위험과 자외선이 가득한 햇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더위나 태풍, 겨울철 혹한과 눈보라도 마찬가지다.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형 놀이시설과 워터파크, 국민여가캠핑장 등 각종 문화레저시설을 두루 갖춘 관광단지

사계절 토탈관광 욕구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유진섭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내장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풍성한 체험·관광시설을 구축해 관광발전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보안면 유관마을 군도 7호선 주변 배롱나무길에 붉은빛 배롱나무꽃이 만개했다.

‘한여름을 붉게 물들인 백일홍’

부안군 보안면 배롱나무 십리길 ‘만개’

부안군 보안면 유관마을 군도 7호선 주변 배롱나무길(4km)에 붉은빛 배롱나무꽃이 만개했다.

백일동안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해 목 백일홍이라고도 불리는 배롱나무는 한여름 폭염속에서 꽃이 개화를 시작해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와 함께 여름을 대표하는 꽃이다.

아름다운 백일홍 십리길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3년 군도 7호선 주변 4km구간에 배롱나무 1,000주를 식재했다. 보안면은 지난 2018년에도 상입석리 1.7km 구간에 180주의 배롱나무를 심었으며,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상림마을에서 가분마을까지 1.6km 구간에

배롱나무 300주를 심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안면 주민은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가며 나가기 위해 수령 다듬기, 풀베기, 지주목 정비, 비배관리, 병해충 방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현욱 보안면장은 "지역주민의 정성이 담긴 배롱나무 길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보안면민과 관광객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근호 부안부군수, 흑서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한근호 부안부군수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모든 행정의 중심에 현장에 두는 현장행정'을 강조한 데 이어 흑서기 13개 읍·면과 주요 사업현장을 찾아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7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누에타운, 격포항 등 주요관광지 안전점검과 현업 근무자 격려, 복지시설 및 향토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군 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계획되었다.

한근호 부군수는 이번 현장방문 첫 대상지로 하서면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로 정하고 입주기관 등을 방문해 미래먹거리 수소산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어 2023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수상레저체험 및 테마형 물놀이 시설 등 청소년 수련지구로 계획된 직소천을 방문해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고 관련절차 이행 등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한근호 부군수는 오는 12일까지 13개 읍·면과 40여개의 주요 현안사업장을 모두 방문할 계획이다.

한근호 부군수는 "부안발전을 위한 역점사업들을 현장과 교감하면서 직접 챙겨 나갈 것"이라며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넘치는 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립도서관, 여름방학 독서 교실 뜨겁게 마무리

정읍시립도서관이 실시한 여름방학 독서 교실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독서 교실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중앙과 신대인, 기적의 도서관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중앙도서관과 신대인도서관은 '돈 너머니(money)'라는 주제로 돈의 발생과 과정, 역사 속 돈의 가치변화, 지폐 디자인, 물물교환 등의 이론과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경제에 쉽게 접근하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적의도서관은 '내가 잠룡준이다'라는 주제로 동화와 관련된 내용을 연극과 신문 만들기, 승람도 그리기 등의 활동으로 쉽게 풀이해 참가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독서 교실 마지막 날에는 여름방학 독서 교실 참여자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여 학생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정읍시장은 이현서(남초3)와 최수아(한솔초6), 김한별(신대인초5), 김나영(정읍초6)이 수상했다. 국립어린이청소년관장은 김민서(남초3)와 고동현(동신초5), 김태현(신대인초6), 곽예숙(수성초4)이 받았다.

도서관사업장은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알려 자발적인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대농갱이 종자 1만 마리 정읍천에 방류

정읍시가 8일 대농갱이 종자 1만 마리를 정읍천에 방류했다.

방류한 대농갱이는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시험장에서 직접 부화·생산된 것으로 건강하고 활발한 약 5cm가량의 우량 종자다.

3년 후 30~50cm까지 자랄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대농갱이는 육질이 연하고 부드럽으며 국물이 개운해 최고의 매운탕감으로 손꼽힌다.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고급어종으로 수산자원이

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사종인 동자개(빠가사리)에 비해 드물게 잡히는 어종이다. 생태환경 변화와 외래어종 확산에 따른 자원감소로 인해 개체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점차 사라져가는 지역 토속 어류 복원을 위해 대농갱이 종자를 3년째 방류하고 있다"며 "생태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and Baekjimaekju.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